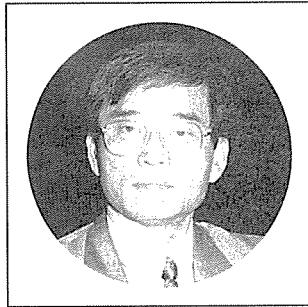


## 재카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 在美科協서 분리-회원배가운동



文光順

재카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LANMET Research Scientist

## 1. 회원현황

본회는 원래 재미과기협의 온타리오지부로 활동해 오던중,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이민의 격증으로 카나다내에 한국계 과학기술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1987년 「재카나다 한국과학기술자 협회」로 발전적 독립을 하여 현재에는 전국 9개 지부에 4백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카나다에는 약 6만여명의 우리나라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성인을 약 1만명으로 볼때 최소한 2천여명은 과학기술계 대학졸업자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회원 확보가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쌓아온 기술을 갖고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다행히도 요즈음에 와서는 과학기술계를 선호하는 이민 1.5세 내지 2세들이 공부를 마치고 제자리에서 보람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여 앞으로의 과학기술인력은 증가 추세를 보일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 424명의 분포(도표 1)를 보면 정회원이 347명이고 학생회원이 77명이다. 그중 물리학 14명(3.3%), 화학 12명(2.8%), 수학 12명(2.8%)등 기초과학이 38명(8.9%)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학 16명(3.5%), 의료보건학 41명(9.7%), 생명과학 45명(10.6%), 지구과학 11명(2.6%), 전산학 8명(1.9%), 그리고 토목공학 22명(5.2%), 기계공학 33명(7.8%), 전기공학 32명(7.5%), 화학공학 14명(2.8%), 재료공학 5명(1.2%)등 공학부분이 106명(24.5%)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나다에 거주하는 각 지부별 자연과학계 대학교수들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반면, 일반회원들은 일부분만 등록함으로써 전체 회원중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많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참고로 카나다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기업체들이 찬조기업회원으로 본협회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자문 및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협조를 자주 의뢰하고 있음을 보고, 재외과기협의

본연의 임무중의 하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여기고 있다.

본 카나다협회는 9개의 지부가 있으며, 이들 지부별 회원분포를 살펴 보면, 온타리오주에 있는 토론토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3명(31.4%), 그리고 오타와에 36명(8.5%), 퀘벡주의 몬트리얼에 61명(14.4%), 알버타주의 캘거리에 30명(7.1%), 에드먼턴에 25명(5.9%), 매니토바주에 41명(9.7%),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 34명(8.0%), 사스كات추언주에 19명(4.5%), 그리고 대서양연안과 대서양연안 3개주에 23명(5.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표 1: 전문분야별 회원분포현황

전문분야	정회원	학생회원	계	비율(%)
물리학	13	1	14	3.3
화학	10	2	12	2.8
수학	9	3	12	2.8
농학	13	3	16	3.8
의료보건학	36	5	41	9.7
생명과학	22	23	45	10.6
지구과학	9	2	11	2.6
전산학	6	2	8	1.9
토목공학	19	3	22	5.2
기계공학	21	12	33	7.8
전기공학	25	7	32	7.5
화학공학	13	1	14	3.3
재료공학	1	4	5	1.2
기타	150	9	159	37.5
계	347	77	424	100

카나다는 동서간의 거리가 약 4,500km나 되어 횡단하려면 몇일이나 걸리는 커다란 나라이기 때문에 협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 2. 운영 및 사업계획

본 협회는 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이사선임제를 폐지

하여, 각 지부의 현직 지부장들이 당연직이사가 되고 이에 회장, 부회장, 전회장, 차기회장등이 추가 이사가 되어, 회장을 이사장으로 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제도의 장점은 종래에 있어왔던 이민사회에서의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고, 회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회원이 전국 우편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회장 및 부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함에 있다.

본협회의 금년도 중요사업계획으로는 (1) 회원증원 및 회원총람자료 보완, (2) 고국에 과학 도서 보내기운동, (3)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년2회 세미나 개최, (4) 년 3~4회 갖는 지부별 세미나 지원, 및 (5) 한-카 기술협력 적극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3. 맷음말

본 재카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온타리오지부에서 1987년에 발전적으로 독립한지 6돌을 맞아 이제는 약 400여명의 회원과 10여개의 찬조기업회원을 갖고 회원들간의 교류와 한-카 기술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협의회」 창설에 즈음하여, 모국 정부에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과학기술협력사업의 기본이 회원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와같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점을 감안하여, 자체 능력이 전혀 없는 재외과기협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적으로 특별지원책을 강구하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인총람」을 전산화 하는것은 물론 이를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해외과학기술자들이 단기간(2~4주 휴가기간) 국내 여러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적극 장려할 수 있으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